

데이터바우처로 중소기업·청년 스타트업 지원...1241억원 투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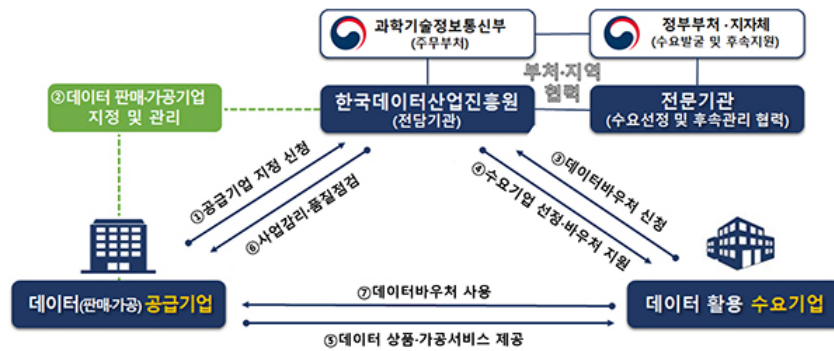
'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' 수요기업 발표...제조·문화·통신·헬스·교육 순

2022.05.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일 데이터바우처를 통해 중소기업과 청년 스타트업의 꿈 실현을 지원하는 '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' 수요기업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.

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기업·기관에 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및 제품·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.

특히 올해는 124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2680건을 지원할 예정이다. 공모결과 총 1만 466건이 접수되어 전년 대비 69.4% 증가했으며 평균경쟁률도 3.9:1로 높게 나타났다.



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추진체계.

분야별 선정결과를 보면, 제조분야가 24.3%로 가장 많았고 문화 15.8%, 통신 15.1%, 헬스 8.7%, 교육 5.4%) 순이며, 상위 5개 분야가 전체의 69.3%를 차지했다.

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723건으로 64.3%이며 비수도권 957건 35.7%로 전년대비 비수도권 선정 비율이 2.5% 상승했는데, 이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 수요 발굴을 적극 추진한 것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.

특히 올해 청년 스타트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결과 전체 선정기업 중 청년 기업이 29.4%를 차지해 데이터 기반의 혁신서비스·상품 개발에 청년들이 적극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.

또한 올해는 운전자 졸음식별 및 졸음방지 웨어러블 디바이스, AI기반 수어 통역 솔루션, AI기반 중고차 상태 자동 검수 솔루션 등 국민안전 및 편익증진 분야에 중소기업들의 참신하고 혁신적인 과제가 많이 선정되어 이 분야에 대한 우수한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류재명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"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혁신을 지원하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데이터 활용 수요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고, 지역·청년기업들의 참여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"이라고 강조했다.

이어 "데이터가 경제성장과 사회혁신의 원동력이 되는 만큼, 중소기업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 경쟁력을 갖추고,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 기반 혁신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"고 밝혔다.

한편 올해로 4년째 접어든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중소기업의 데이터 활용 저변을 확대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산업발전을 촉진함은 물론, 사회현안 문제 해결이나 국민안전 및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있다.

지난해에는 영유아 감염병 및 기타 질병 조기진단 챗봇 개발을 위한 데이터 구축 및 가공, 청정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지능형 해양쓰레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사회현안 해결 과제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.

문의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데이터진흥과(044-202-6297)

인쇄하기

닫기